

투어 번호
LKNTPSEKAW

세일론 사랑(27일)

22일 · 21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7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남쪽 해변에서 시작하여 고지대와 문화삼각지대를 거쳐 북동부 해안까지 이동한 후 콜롬보로 돌아옵니다. 남쪽의 히깟두와, 갈레, 미리싸, 야라를 거쳐 엘라, 누와라엘리야, 캔디의 고지대로 올라가며, 담불라, 시기리야, 폴로나루와, 아누라다푸라의 고대 도시들을 둘러본 후 북쪽의 트린코말리와 잠프나로 향한 뒤 콜롬보와 네곰보로 마무리됩니다.

여행객들은 섬의 진정한 단면을 경험합니다: 남부 해안의 식민지 요새와 외발잠수, 표범과 코끼리 사파리, 차 재배지를 지나는 경치 좋은 기차 여행,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와 문화삼각지대의 폐허 도시들, 잠프나 주변의 힌두 사원과 전쟁 기념비, 트린코말리 해역의 고래 관찰과 산호섬, 그리고 콜롬보에서 도시 생활의 마지막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속도로 진행되며, 해변 시간, 하이킹 또는 한 지역을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도록 여러 날의 체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투어는 개인 차량과 기사 겸 가이드가 함께하며, 각 구간 사이의 이동과 물류를 담당하므로 여행객이 교통편을 직접 준비할 필요 없이 해변에서 고지대, 고대 도시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학가두와 & 갈레 (1~3일차)

공항 도착 후 해변 리조트 지역인 학가두와로 이동하며, 이어서 식민지 시대의 도시 갈레와 그 주변을 둘러보는 하루를 보냅니다.



학가두와

갈레 남부 지방에 위치한 해변 휴양 도시로, 산호가 둘러싼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도착 후 체크인을 마치면 해변 리조트에서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Astronomyinertia · CC BY-SA 3.0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본거지로 삼았던 옛 식민지 도시를 탐방합니다. 중심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인 갈레 요새가 있습니다. 박물관과 등대를 방문하고, 네덜란드식 이름이 남아 있는 자갈길을 걸어보세요.

Rovin Shanila · CC BY-SA 4.0



한두누고다 차 공장

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도 알려진 이곳에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채엽되고 가공되는 유명한 버진 화이트 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와 초콜릿 케이크를 맛보는 티 테이스팅 시간이 있으며, 찻잎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루마사라

갈레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언덕으로, 정상에는 하얀 불교 다고바(탑)가 세워져 있으며 우나와투나 해변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하누만이 드로나기리 산을 옮기던 라마야나 이야기와 관련이 있으며, 시타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전해집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스틸트 피셔맨(장대 어부)

코갈레 인근 해안에서 수세대에 걸쳐 전해진 독특한 방식으로, 장대 위에 걸터앉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직접 만나고 그 어로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세요.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4 미리사 (4~5일차)

초승달 모양의 미리사 해변에서 이틀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원한다면 주변의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미리사 해변

웰리가마 만의 동쪽 끝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해변으로, 황금빛 모래사장과 흔들리는 야자수가 마치 외딴 섬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근처에는 패럿 록, 시크릿 비치, 터틀 포인트, 코코넛 트리 힐 등의 명소가 있습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6 얄라 (6~7일차)

바다거북 보호소와 특이한 해안 지형을 거쳐 얄라로 이동한 뒤,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하루 종일 사파리를 즐깁니다.

바다거북 부화장

레카와에서는 스리랑카 해안에 알을 낳는 다섯 종의 멸종 위기 바다거북에 대해 배우고, 낮 시간 거북 관찰에 참여하며, 원한다면 몇 시간 동안 부화장에서 자원봉사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우상고다

독사 모양의 암반에 유독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식물 성장이 제한된, 식생이 거의 없는 해안 고원 지대입니다. 이 지역의 불에 탄 듯한 모습은 하누만과 라바나 왕의 라마야나 이야기와도 연결되며, 한때 라바나의 전차가 오가던 공항으로 쓰였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A.Savin · FAL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섬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에서 하루 종일 사파리를 즐깁니다. 스리랑카 표범, 물소, 늘보곰, 코끼리 무리와 더불어 다양한 조류, 파충류 및 기타 야생동물을 만나보세요.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8 엘라 & 누와라엘리야 (8~10일차)

고대 조각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고지대 마을 엘라로 이동한 뒤, 고산 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치 좋은 기차를 타고 식민지 시대의 휴양 도시 누와라엘리야로 향합니다.



부두루와갈라 사원

마하야나 불교 전통에 속하는 10세기 고대 불교 사원 유적지로, 일곱 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상에는 원래의 회벽과 채색된 법의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인근의 한 조각상은 관세음보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Vishvax (talk) (Uploads) · CC BY-SA 3.0



엘라

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 리틀 아담스 피크가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며 마을과 그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인 아치 다리를 건너 독특한 루프형 선로로 유명한 데모다라 역에서 마무리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엘라 록

나무누쿨라 산맥과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지나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한 곳까지 오르는 3시간 코스의 하이킹입니다. 정상에서는 반다라웰라 산맥, 푸나갈라 힐, 나랑갈라, 엘라 협곡 등의 명소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경치 좋은 기차 여행

하푸탈레에서 누와라엘리야까지 산과 폭포, 차밭을 지나며 안개에 덮인 작은 마을들을 스쳐 지나가는 기차 여행입니다.

Chamal N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의 주요 휴양지였던 고산 도시로, 거리를 따라 오두막, 빌라, 저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 빅토리아 여왕 공원, 그레고리 호수 등을 방문해보세요.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1 칸디 (11~12일차)

차 공장과 폭포를 거쳐 칸디로 이동한 뒤, 도시의 문화 공연과 사원, 식물원을 둘러봅니다.

차 공장 방문

실제로 운영 중인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하여 실론 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차 재배가 시작된 것은 1850년대, 영국인 제임스 테일러가 칸디 인근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차나무가 페라데니야의 왕립 식물원에서 시험 재배된 바 있습니다.



람보다 폭포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인 람보다 폭포를 방문하고, 인근 맥우즈 차 농장에서 차의 종류와 가공 과정을 설명해주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합니다.

A.Savin · FAL



칸디안 문화 공연

불춤, 검무, 칸디안 댄서들이 드럼 연주에 맞춰 공연하는 전통 스리랑카 예술 공연을 1시간 동안 감상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채색된 홀과 조각된 기둥, 금빛 불상들을 감상해보세요.

A.Savin · FAL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에는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있으며, 대포알 나무와 현수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3 담불라 (13~15일차)

호수와 향신료 정원을 둘러본 뒤 문화 삼각지대로 들어가, 시기리야, 민네리야, 폴론나루와, 담불라의 주요 명소들을 탐방합니다.



셈부와타 호수

엘카두와 인근에 위치한 천연 샘물 호수로, 깊이가 30~40피트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옆에는 자연 수영장이 있습니다.

Sivanandhan Dishanthan · CC BY-SA 4.0



향신료 정원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을 재배하는 향신료 및 약초 정원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고, 전통 요리 시범과 로티 또는 커리 파우더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샤파 왕이 세운 5세기 바위 요새를 올라, 이 유적지의 이름이 된 사자의 발 사이로 입구를 지나 들어갑니다. 유명한 프레스코 벽화와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궁전까지 이어지는 터널을 둘러보세요.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투어

시기리야 인근의 전통 마을을 방문해 소달구지 타기, 마을 호수에서의 카타마란 사파리, 논길 걷기, 요리 시범을 경험하고, 연잎에 차려진 가정식 점심 식사로 마무리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5월부터 10월 건기 동안 최대 150마리에 이르는 코끼리들이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한 민네리야에서 3시간 사파리를 즐기며,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도 함께 만나보세요.

Stuart Pinkney · CC BY 2.0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입니다. 갈 비하라, 바타다게, 연못 욕장, 랑카틸라카 사원,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 등 유적지를 둘러보세요.

Bernard Gagnon · CC BY-SA 3.0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된 담불라 황금 사원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부처의 생애를 그린 벽화와 수백 개의 불상이 있으며, 그중에는 신성한 왕의 동굴과 위대한 왕의 동굴도 포함됩니다. 사원 단지 바깥에는 커다란 황금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16 트린코말리 (16~18일차)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트린코말리에서 사원과 요새, 해변을 둘러보고, 고래 관찰 투어와 인근 섬 및 유적지 방문을 즐깁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 성자들이 찬양했던 고대 사원으로, 벽화를 통해 그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석굴 성당은 기원전 약 158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본당 건물은 기원후 약 400년경부터 발전해왔습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프레더릭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해체된 코네스와람 사원의 돌을 이용해 처음 건설했으며, 이후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닐라벨리 해변

황금빛 모래와 야자수, 맑은 물을 자랑하는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10세기 타밀어 비문에는 이 해변이 코네스와람 사원에 기증된 토지의 일부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nton 17 · CC BY-SA 4.0



트린코말리 고래 관찰 사파리

대왕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는 5시간 투어로, 각 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전문 자연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Ji-Elle · CC BY-SA 3.0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크고 작은 두 개의 피전 섬으로 이루어진 해양 공원으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번식 중인 바위비둘기와 다양한 산호 및 어종이 서식합니다.

AntanO · CC BY-SA 4.0



티리야야 와타다게

고대 타밀 불교의 중심지였던 마을로, 부처가 두 상인에게 머리카락 사리를 전했다는 전설이 담긴 기리하두 세야 스투파와 마지막 바니야르 족장 중 한 명의 요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19 자프나 (19~20일차)

북부 반도로 이동하여 자프나의 힌두 사원, 식민지 시대 요새, 섬에 있는 성지들을 둘러봅니다.



자프나

스리랑카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와 반도로, 날루르, 나이나티부, 마비타푸람 등 고대 힌두 사원과 네덜란드 요새, 최근에 세워진 전쟁 기념비, 사라스와티 마할 도서관, 나가디파 비하라, 그리고 자프나의 마지막 왕 캉킬리 1세의 궁전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가디파 섬

나이나티부, 나가디파, 혹은 고대에는 마니팔라밤으로 불렸던 이 섬은 자프나 북쪽에 위치하며, 뱀을 숭배했던 나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과 나가디파 푸라나 비하라에서 그 역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

적어도 2천 년의 기록된 역사를 지닌 힌두 사원으로, 인드라 신에 대한 숭배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개의 고푸람과 여러 만다팜, 사원 전차를 포함한 드라비다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 64개의 샤크티 피담 중 하나로 꼽힙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Day 21 아누라다푸라

스리랑카 최초의 고대 수도에 들러, 광활한 녹지 위에 자리한 스투파와 수도원, 성지들을 둘러봅니다.



아누라다푸라 유적 도시

기원후 10세기까지 천 년 이상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곳으로, 유적지 전역에 불탑, 수도원 건물, 연못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한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 스리 마하 보디,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이 있습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22 콜롬보 & 네곰보 (22~24일차)

콜롬보에서 도시 관광과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며 여행을 마무리한 뒤, 출발 전 공항 근처 네곰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 등 콜롬보의 명소들과 함께 독립 광장, 경마장, 도심의 상점가도 둘러봅니다.

Gihanud2001 · CC0



콜롬보 데이 라이프

콜롬보의 해변과 데이클럽에서는 주말 파티와 칵테일,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카지노와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부티크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Gihanud2001 · CC0



네곰보

공항 인근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해변 도시로, 수세기에 걸친 어업 전통과 더불어 해양 스포츠, 그리고 해안에서 가까운 50년 된 난파선 주변에서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Except for Credit Card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Lakpura® · 요금, 옵션 및 예약: www.lakpura.com/ko/products/ceylon-endearment-27-days
hello@lakpura.com · +94 11 574 7474